



우리시대 참스승

내촌중학교 교장 양응규

부모의 뜻에 따라 고향 포천에서 근무

포천시 역도·사이클 발전의 초석 다져

학생들에게 '거짓된 생활을 하지 말 것'을 일관되게 교육해 온 양응규(사진·63) 내촌중학교 교장은 포천 체육계의 산 증인이다. 특히 학교 엘리트 체육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교장은 포천초등학교, 포천중학교, 포천중고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한 후 1972년 가평군 조중중학교에 첫 부임해 2007년 현재까지 36년 동안 교육에 헌신해왔다.

양 교장은 영중중학교, 포천종합고등학교, 일동종합고등학교, 경북중학교, 경북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교장으로 승진해 포천여자중학교, 교장으로 승진해 내촌중학교에 부임했다.

포천실업고등학교(1978년-1985년) 체육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역도선수들을 적극 지도하여 제62회, 63회, 6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3회에 걸쳐, 교육감 표창을 수상했으며 특히 역도선수의 저변확대를 위해 3km떨어진 포천중학교 학생까지도 출장 지도하여 포천시의 역도를 발전시켜 국가 대표선수 3명을 배출시키기도 했다. 이런 노력으로 현재 포천시청 직장경기부 역도팀 탄생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학지도에도 남다른 노력과 봉사를 했다. 1988년부터 1996년까지 포천고등학교 교무부장으로 8년간 대부분 초임교사로 구성되어 있는 교직원과 나후원 지역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교직관과 사명감을 갖고 조직적인 진학준비와 사전지도 등의 꾸준한 노력으로 대한 진학률을 매년 연속 20%이상씩 향상 시키고 있으며 1996년에는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보다 더한 노력으로 80%의 진학을 목표로 학력신장에 헌신, 봉사하여



후진 양성과 향토교육발전에 노력해왔다.

양 교장은 관리자로서 학교경영의 효율성을 높인 지도성을 발휘하기도 했다. 포천여자중학교 교장으로 3년간 근무하고 내촌중학교 교장으로 1년동안 관리자로서 지역사회 학교 발전의 애정 어린 목적의식과 진실성을 갖고 열과 성의를 다함으로 지역사회 및 교직원들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

특히 양 교장은 노부모를 지극한 정성으로 봉양해 와 효행실천의 모범이 되고 있다. 1975년3월 포천군에 전입하여 31년간 고향인 포천에서 근무하면서 87세의 부모님을 극진한 효심으로 모시고 있다. 또한 평소 웃어른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미덕을 부

부가 실행하여 아침, 저녁문안을 현재까지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어 자녀들이 이를 따라 실천하고 있다.

특히 양 교장은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여 지금까지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만 근무하며 도시근라 박지근무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부모님을 일념으로 모시고 있어 경력이나 연령이 높음에도 승진관리 등을 하지 않은 채 효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공경, 사랑, 우애를 가함으로 형제, 남매간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지도하여 이웃의 모범이 되는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

양 교장은 지난 1년동안 내촌중학교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돌아오는 농어촌학교로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학교를 살리는데 앞장서왔다. 이제 그 초석위에 다양한 교육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해 양 교장은 "학교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교사들이 무언가 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포천체육계에 대해 "운동하는 사람들은 스포츠맨십이 중요하다"며 "서로 같고 같고 반박이 조성되면 그동안 이룩한 경기도 체육대회 6연패의 위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장은 오는 22일 퇴임식을 앞두고 있으며 내촌중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학생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횡단보도와 정지선의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정지선을 서울 방향으로 더욱 멀게 설치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포천시청이나 관계기관에 건의했지만 이뤄질지 답변이 없는 상태라며 꼭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 글로벌 인재 새싹 격려

도덕성과 창의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최길용)은 도덕성과 창의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시책으로 '포천 글로벌 인재 새싹상'을 제정해 2월8일 시상식을 갖고 격려했다.

이날 글로벌 인재 새싹으로 선정된 116명은 포천시 관내 2만여 초·중학생 중에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발한 글로벌 인재 새싹들이다.

글로벌 인재새싹을 발굴하기 위해 2006년12월15일 사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선정분야와 영역, 선발기준, 선정위원 추천 등을 협의했으며 교육시책인 도덕성 함양에서 선행활동 등 3영역, 창의 신장에서 글짓기, 웅변 등 17영역, 기타영역 등 모두 21개 영역으로 확정해 각 영역별 선정위원을 위촉했다.

1월15일 선정위원 위촉을 통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에서 추천받은 포천글로벌 인재 대상자를 중심으로 2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포천 글로벌 인재 새싹 116명을 선정, 개별 통지했다.

2월8일 '포천 글로벌 인재 새싹 잔치'를 포천시청을 비롯한 내빈과 학부모, 학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잔치는 식전 행사로 제7회 춘천 고음악 페스티벌 합주부 대



상을 수상한 청성초등학교 리코 더합주단 24명의 파소도블 등 3곡 연주와 최길용 경기도포천교육장으로부터 '포천 글로벌 인재 새싹상' 116명에게 수여하고 표창장을 수여하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새싹들에게는 '가난하다고 꾀조차 가난할 수는 없었다'와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라는 도서 2권을 전달해 새싹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도 했다.

또한 학교장과 학부모에게는 각각의 지도 및 노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식후공연으로 제15회 전국어린이

이 연극대회 금상을 수상한 관내 초등학교의 연극부 학생들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퍼포먼스로 잔치의 끝을 장식하고 내빈, 학부모, 학생, 교원이 함께 한 오찬이 이어졌다.

포천 글로벌 인재 새싹은 효행 실천, 글짓기, 웅변, 학력, 독서, 과학, 정보처리, 한문, 토익, 토플, PELT, 영어, 미술, 음악, 체육, 바둑, 기타(연극) 분야에 116명을 선정했으며 특히 동남중학교 2학년 김육봉 학생은 안무병중인 어머니를 적극 간호하고 효행수상자를 각급 공모에서 수상하고 방송매체에 보도되는 등 효행실천 분야에서 새싹으로 선정됐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제1회 고입·고졸 검정공시 4월15일

응시원서 접수 2월22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교육청은 2007년도 제1회 고입·고졸 검정고시를 오는 4월15일(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정고시 시행 공고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게시된다.

응시원서는 2월20일부터 2월2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및 제2

차 민원실과 경기도교육청 관내 25개 지역교육청에서 교부(토·일요일 제외)한다.

접수는 2월22일부터 2월28일까지(토·일요일 제외)이고, 수험 동성중학교 체육관 및 의정부공업고등학교 도서관동 2층에서 접수를 받는다.

동성중학교에 접수한 수험생은 수험지역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고, 의정부공업고등학교에 접수한 수험생은 의정부지역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합격자 발표는 5월14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시험정보에 탑재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검정고시 응시자 점원에게 응시 결과를 개별적(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과학영재 육성의 토대

2006 과학영재교육원 수료식



2006 과학영재교육원(원장 최길용)은 2월7일 경기도포천교육청 3층 강당에서 수료식을 갖고 초등학생 21명과 중학생 12명등 과학영재 33명을 배출했다.

이날 수료식에서 성적이 우수하여 경기도교육감 표창 2명, 교육장상 표창은 13명이 수상했다. 최길용 경기도포천교육장은 "이번 영재교육원 강사들의 열정

과 동기가 학생들 마음속에 평생 교훈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고 수료하는 학생들에게 수료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표창장 수상자와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교육감상 ▶ 김민제(갈월중2년) ▶ 이영아(신북초 6년) ■경기도포천교육장상 ▶ 송민수(왕방초 5년) ▶ 조연주(내촌초 5년) ▶ 김효진(내촌초 5년) ▶ 이보혜(내촌초 6년) ▶ 이영아(신북초 6년) ▶ 권지연(포천초 6년) ▶ 박도희(포천초6년) ▶ 김민제(갈월중2년) ▶ 김조은(갈월중 2년) ▶ 장재은(동남중1년) ▶ 기수미(영중중 1년) ▶ 김경이(포천여중2년) ▶ 양지원(포천중2년) ■수료자 ▶ 최석주(가산초5년) ▶ 김효진(내촌초5년) ▶ 조연주(내촌초5년) ▶ 송은성(선단초5년) ▶ 김기훈(송우초5년) ▶ 이주혜(송우초5년) ▶ 손소이(신북초5년) ▶ 송민수(왕방초5년) ▶ 양미연(왕방초 5년) ▶ 김승현(추산초 5년) ▶ 이현석(추산초5년) ▶ 조재환(추산초 5년) ▶ 제혜은(태봉초5년) ▶ 윤성섭(가산초 6년) ▶ 이보혜(내촌초6년) ▶ 이상훈(송우초6년) ▶ 이영아(신북초 5년) ▶ 전병준(왕방초 6년) ▶ 천성인(추산초6년) ▶ 권지연(포천초6년) ▶ 박도희(포천초6년) ▶ 장재은(동남중1년) ▶ 조성환(포천중1년) ▶ 기수미(영북중2년) ▶ 김태훈(포천중1년) ▶ 김민제(갈월중2년) ▶ 김조은(갈월중2년) ▶ 한인애(삼성중2년) ▶ 이주연(영북중2년) ▶ 이민한(일동중2년) ▶ 김경미(포천여중2년) ▶ 나현진(포천중2년) ▶ 양지원(포천중2년)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선단동 청소년지도원 교복 지원

지난해 이어 두 번째 학생 4명에 혜택

선단동 청소년지도원 위원회(위원장 강산범)는 지난해에 이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4명에 대해 교복을 지원했다.

송우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한 모 학생은 소년소녀가장으로서 쌍둥이 동생 2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현재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다.

포천일고에 진학한 김 모학생은 아버지와 자녀 3명이 생활하고 있는 부자가정 수급자 세대다.

포천남중에 진학하는 문 모학생은 어머니가 식당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어려운 가정이다.

포천여중에 진학하는 장 모학생은 부친이 지체장애 3급으로 생계가 곤란한 실정이다.

하승환 기자 form65@paran.com

운동성의 국제비즈니스 미국영어

5팀장: 팀리더 (Team Leader):

*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시대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조직을 개편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 팀장은 직급에 관계없이, 능력위주로 임명하는 게 최근 기업문화의 일면 이기도 하다. 관공서의 조직도 점차 기업형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다.

* 기능별 "팀" 명칭 :

- 1) 인사관리팀 : Personnel Management Team.(퍼스넬매네이지먼트 팀)
- 2) 경영관리팀 : Business Management Team.(비즈니스매네이지먼트 팀)
- 3) 재무관리팀 : Finance Management Team.(파이낸스매네이지먼트 팀)
- 4) 생산관리팀 : (공장관리) Production Management Team.(프로덕션매네이지먼트 팀)
- 5) 수출입 관리팀 : (무역부문) Export/Import Management Team.(엑스포트/임포트매네이지먼트 팀)
- 6) 자재관리팀 : Materials Management Team.(매터리얼스매네이지먼트 팀)
- 7) 대리점 총괄팀 : Distributors Management Team.(디스트리뷰터스 매네이지먼트 팀)
- 8) 장비관리팀 : Maintenance Management Team.(메인테넌스매네이지먼트 팀)
- 9) 연구개발팀 : R/D Team.(리앤디 팀) (Research and Development Team)(위찌지 엔지니어링 팀)
- 10) 공사관리팀 : Field Management Team.(필드매네이지먼트 팀)

문의 : 윤종성 (017-723-4977)cdlyoon@nate.com

함께 공부해요

明長幼之序 ⑬

(장유간의 질서를 밝힘)

惑問 兄弟有過 어든 可相言之否야 退溪先生曰 此是最難處 事 但當致吾誠意 하여 使之感悟然後 에 始得無害於義 니 若誠意不孚 하고 而能以言語正責之 則 則不至於相疏者 幾希 라 故 孔子曰 兄弟怡怡 라 하시니 良以此也 니라.

(嚴 엄합일 肅 다될진)

혹문 형제유과 어든 가산언 지부아 퇴계선생말 차시최나쳐 사 라 단당치오성의 하여 사지 감오연후 에 시득무해어의 니 약성의부부 하고 이도이언어정 책지 면 즉불지어상소자기하 라 고 로 공자왈 형제간에 화합 하야야 한다 고 말씀하신 것은 실로 이 때문이다.

로 하여금 감동하여 깨닫게 한 뒤에야 비로소 정의(情誼)에 해로움이 없을 것이니, 만약 성의(誠意)를 미답게 하지 못하면서 한자 말로 꾸짖으면 소원함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형제간에 화합 하야야 한다 고 말씀하신 것은 실로 이 때문이다.

(문의:011-354-6485)



양수준 본지 자문위원